십자가의 삼박자 축복과 기도

(마 8:23~27)

23. ○배에 오르시매 제자들이 따랐더니
24.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25. 그 제자들이 나아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27.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의 삼박자 축복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3일 동안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복음의 사건이 삼박자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삼박자 축복을 담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향한 축복이지만 객관적인 가능성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실제로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내 것 삼기가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물론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사건이 우리의 의식의 차원에서 머물고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의식의 차원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천년 전의 사건이 오늘의 사건으로 재현이 되어야 합니다.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들은 사건이라도 그렇게 재현이 되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 실제로 삼박자 축복에 그 힘을 우리가 내 것으로 삼으며 실재에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기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기도' 하면 주님께서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새벽 미명에 제자들 다 놔두고 혼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십니다. 군중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들떠서 임금 삼으려고 할 때, 그 인기를 누리시지 않고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고 산에 올라가서 혼자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에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분께서 기도와는 전혀 반대 입장에 있는 것 같은 잠을 주무시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있음과 기도가 같이 가는 것 같은데 오늘은 주님께서 잠을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잠자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혀 기도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 풍랑 만난 에피소드 안에 기도가 무엇

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실재적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함께 생각할 때에,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 잘 아시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뭐 기도의 종류가 굉장합니다. 간청하는 기도, 중보의 기도, 하나님께 듣기 위한 기도, 등 여러 가지 기도…
실지로 저는 이 책을 읽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 책에 나온 대로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돈 문제 생기면 돈 기도하기도 하고, 건강문제 생기면 건강 기도하기도 하고, 자식문제 생기면 자식 형통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게 고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알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풍랑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그 배 안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죽음의 두려움 속에 빠져서 그 풍랑을 헤쳐 나가기 위해 어쩔 줄 모르고 광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란 무엇입니까?
이 풍랑 만난 배 위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옮겨 주는 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해도 틀리지 않는다면 기독교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기도함을 통해서 풍랑 속에서 잠잘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의 과제와 기독교인에게 주어져 있는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특권은 풍랑을 잠재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풍랑 속에서 잠자는 데에 있는 겁니다.

돈 문제의 풍랑이 일어납니다. 건강문제의 풍랑이 일어납니다. 가족의 문제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이때, 기독교인이 기도를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 기독교인답게 될 수 있는 것은 풍랑을 잠재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풍랑 속에서 잠자는 데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풍랑 속에서 잠잘 수 있는 처지로 바뀌어 지는 것, 제자들의 두려움에 떨며 광분하고 있는 이 모습으로부터 쿨쿨 잠자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옮겨지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능해진다는 것이며,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삼박자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서 예수님 당신의 자리에 서라는 것이에요. 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의 자리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잠을 잡니다.

이 풍랑 만난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함께 생각한 삼박자 축복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 분석을 해 보면 이런 거지요.

제자들은 이방인의 처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리 없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지마는 그들은 하늘 아버지 되심이 그 마음속에 느껴지지 않고 있는 상탭니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에 마음이 참여되어 있지 않아요. 그 반대로 이 세상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 밑에서 공중에 있는 마음이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참여하지 못하고 몸이 속해 있는 이 땅으로 마음이

참여하게 되면서 한마디로 몸을 통하여 이 세상의 풍랑현장에 마음이 끼어들어 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고 주님은 그 풍랑 만난 현장 속에서 공중에 있는 주님의 마음이 풍랑 만난 몸 쪽으로 내려오지를 않고 마귀를 이기심으로 그 공중에서 마음이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로 참여하게 됩니다. 창조주 되심이 주님의 마음에 느껴지는 단계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느낄 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풍랑은 티끌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지요.

반대로 제자들은 이 세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몸을 통하여 몸이 처한 상황 속에 마음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끼어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지속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외인인 상태로 이방인의 처지에서 이러한 몸에 의해서 이 세상 상황에 끼어들어간 마음의 상태가 지속되면, 망하는 겁니다.

제 큰 외삼촌이 청년 시절에 돌아가셨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기시고 능력도 많으셨고 훌륭하셨다고 그래요.
외할머니께서 거의 정신병자가 되다시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대구에서 계시다가 주말이 되면 어머니가 계시는 창녕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역에 내려서 집으로 걸어오는데 아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싸움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 이 싸움을 말리려고 싸움에 끼어들었다가 한 사람이 담벼락 밑에 쌓아 둔 장작을 들고 상대방을 향해 내리 친 것이 그만 그 싸움에 끼어들어온 외삼촌의 머리에 맞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싸움은 말릴 수 있으면 말리는 게 좋지만 비유적으로 끼어들어갈 때에 이 세상에 내 몸이 처한 상황에 우리 마음이 끼어들어갈 때,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망하고 맙니다.
왜? 공중권세 잡은 자의 권세 밑에서 되어 진 일이 우리의 마음이 몸으로 쏠려서 몸이 처한 상황에 끼어들어가고 참여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기도란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실존적인 상황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 제자의 상황에서 주님의 상황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풍랑의 상황에 몸을 통하여 빨려 들어가고 있는 마음이 빨려 나와야 돼요.
끄집어져 나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이 주님이 죽으신 그 몸과 오버랩 되면서 내가 죽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오버랩 시키는 겁니다.

자, 먼저 오버랩 시켜서 내가 주님이 죽으신 모습과 함께 겹쳐지면 내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씌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시면류관이 씌어 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몸으로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 생각도 없고 생각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생각으로 참여하는 상태가 제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 손과 발에 못이 박힙니다. 내 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손을 대고 콘트롤하고

내가 어떻게 조정해 보고 내가 개선해 보려고 손으로 대고 발로 뛰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손과 발에 못이 박혀 버리면서 내 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던 입장이 제로가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내 옆구리에 창이 들어옵니다. 옆구리에 창이 들어온다는 게 뭐예요? 배에 있는 모든 기운이 다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배의 기운이 뭐예요? 내 배를 채우려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불만을 느끼며 만족을 원해서 소원하는 것들, 무엇을 바라는 것들, 바람과 소원과 희망 모든 꿈에 대한 힘들이 다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게 되는 제로의 상황이 됩니다.

그걸 하나하나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묵상하며 기도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채찍에 의해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것은 내 살처럼 나에게 친한 사람들, 내 살처럼 나에게 아깝게 여겨지는 물건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듯이 다 떼어내는 겁니다. 내 배우자도, 내 자식도… 그에 대한 내 관계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죽은 것이에요.

이렇게 되지 않고는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 내 이름을 위하여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집이나 전토나 모든 것을 다 버린 자… "입니다. 또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아버지와 아들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형제가 더불어 싸울 것이다"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자마자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과 오버랩 되자마자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살처럼 가깝게 느꼈고 그가 아프면 내가 아플 정도로 일체되어 있던 모든 친밀한 관계의 사람이던 물건이던, 그것들이 다 마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한 단계 한 단계를 묵상해 나갈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마음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내 마음이 드디어 몸에 묶여서 몸이 처한 상황에 참여하고 있던 상태에서 풀려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 십자가 묵상이 필요합니까? 내 마음에서 몸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염려했습니다. 염려가 끊어지는 상황까지…
걱정했습니다. 걱정이 끊어지는 상황까지…
그 걱정과 염려를 일으키는 상황을 그 풍랑을 잠재우려고 기도하지 말고 돈 문제가 생겼으면 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돈 문제의 풍랑 속에서 내 마음이 빠져나오는 기도를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라는 얘기에요. 빠져 나오는 기도를,

그리고 빠져나와서 이제 제 2단계로 들어갑니다. 세상에 끼어들어가 있던 내 마음이 세상에 불참하게 됩니다. 세상에 대해 죽는 거지요. 불참하면서 동시에 불참한 채로 머물러 있느냐? 아닙니다. 이제 하늘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돈 문제를 해결하고픈 강렬한 욕구를 그대로 옮겨요, 하늘 쪽으로. 하늘 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 강렬한 소원의 욕구, 열정을 그대로 하늘로 옮겨서 위에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 하나님이 외아들을 나에게 주실 만큼 희생시키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이론으로 다 알고 있어요. 이 이론으로 다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이 어느 정도로 느끼고 있습니까? '어, 난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랑을 느끼면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사자 밥이 되어 죽더라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풍랑이 있어도 여러분은 잠 잘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마음에 진짜 느껴진다면

근데 왜 눈꼽만한 일이 일어나도 내 마음 속의 풍랑이 걷잡을 수 없도록 거세게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이셨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론 알고 있지만 그 십자가 사건으로 표현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내 마음이 먹고 있고, 벌고 있고 그 사랑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딸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딸은 어머니의 사랑을 몰라요. 언제쯤이면 어머니의 사랑을 알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 자식을 낳아 자기가 어머니가 되어야, 자기가 딸을 낳아보고 길러야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하잘 것 없는 죄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패로 가득 차 있는 인간의 사랑도 그 사랑을 느끼고 깨닫는 데에 적어도 결혼할 때까지 유보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실감나고 바르게 이해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쉽게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 부른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외아들까지 보내주시며 희생시키셨다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일 년, 이 년, 삼 년, 평생 동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기간 동안, 평생 동안 알아져 가야 되는 것이지, 한 마디 교리적으로 고백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복음송으로 노래 부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얘기 했어요.
자, 그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여호와가 만군의 주라는 사실은 모세 이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진격해 들어갈 때부터 알려져 있던 사실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그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단어가 지칭하는 여호와가 자기들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군인은 사울 왕부터 졸개까지 아무도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주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특별히 반복해서 쓰는 말이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 할례가 뭡니까? 선민의 특징이고 싸인입니다.
"만군의 주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할례 받지 못한 저 골리앗이 우리를 우습게 여겨? 골리앗이 뭔데?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런데 다윗은 목동 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에게서 늑대, 곰에게서 양을 빼낼 때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만군의 주 되심에 마음이 깊이깊이 참여되고 있었어요. 양 치면서 돌팔매질하면서,

사울은 만군의 주 여호와 되심에 참여하는 대신에 군사력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나름 막강한 군사력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군사력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는 다윗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만군의 주 되심을 마음에 깊이 실감하고 받아들이고 하늘 하나님 아버지의 특성에 참여하게 될 때, 마음이 얹혀 지게 될 때에 일평생 준비한 군사력을 갖고 쩔쩔매고 있는 사울 위에 서서 골리앗을 죽여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과제가 뭐예요?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 되셔서도 그 분의 과제가 사랑받는 것이더만요. 맨날 설문조사를 해서 지지도를 확인합니다. 사랑받는 것이에요. 국민에게 사랑받는 대통령, 대통령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좌우되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사랑받는 아버지, 아버지 됨의 성패 여부를 좌우합니다.
제자들에게 사랑받는 교수, 성공 여부를 좌우합니다.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사업가, 사업가의 성패 여부를 좌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졌어요. 그러므로 성공은 끝났어요. 이제 과제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느냐, 성공을 하느냐, 얼마나 높은 위치에 올라가느냐, 얼마나 대통령답게 사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사랑을 어떻게 많이 깨달아 가느냐 하는 게 과제라 이겁니다.

우리의 성공은 이미 주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공을 누리지 못하고 성공을 느끼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요. 십자가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흔적들을 묵상하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내 마음이 탈출합니다. 그 마음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외아들을 죽이셔서 나를 위해 희생시키실 만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하여 성령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것이 실감되기까지는 반드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추고 따로 구분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위해 주님도 목숨을 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목숨을 걸었어요.
예를 하나 들어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시아 전도에 길이 막히고 마케도니아 사람이 부르는 환상을 보고 유럽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선교지역이 빌립보였어요. 빌립보에서 일이 잘못되어서 귀신들린 점쟁이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그만 그 여종의 주인들이 수익이 떨어진 것에 불만을 품고 고발을 하는 바람에 매를 많이 맞고, 착고에 채워 감옥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그래요. 기도하고 찬양한 뒤에 그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결국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될 때에, 이 본문의 묘미는 여기에 있어요. '내가 로마 사람인데 너희가 재판도 하지 않고 나를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날 조용히 놓아주려고 그러느냐?'

그 소리를 듣고 옥졸이 깜짝 놀라서 상전들에게 가서 '로마사람이랍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그 때의 법이 로마 사람은 어떤 지방에 있을 때 자기가 원하지 않는 한 그 지방법에 의해 재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누가 로마 시민을 재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 맞기 전에 왜 그 얘기를 안 했느냐 이거에요. 왜 이유도 없이 매를 맞으면서 내가 로마시민이라는 얘기를 앞서 했으면 감옥에 들어가지도 않고 매를 맞지도 않고 착고에 채워지지도 않았을 텐데, 왜 안 했느냐 이겁니다.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알 수 없다'.

전 알 것 같아요. 본문을 자세히 읽어 보면 13절에 빌립보에 처음 도착했을 때, 안식일을 맞아서 기도하기 위해 강 가로 나가게 됩니다. 기도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 16절에 보면, 또 기도하러 가는데 이 귀신 들린 점쟁이 여종이 쫓아오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몇날 며칠을 쫓아 다니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괴로워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로마시민이라는 것을 숨기고 감옥에 들어가서 한 게 뭐예요?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면 왜 로마시민인 것을 밝히지 않았는지 짐작가지 않으세요?

기도할 장소를 찾은 거예요. 빌립보는 유대 문화가 극히 희박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디아스포라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하게 마음 놓고 기도할 장소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안식일에 기도하는 장소를 찾으러 강가에 나갔다가 여자들을 만나고 그 다음 또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점쟁이 여종을 만나서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쫓아 다니면서 계속 떠들어대니까 무엇이 방해를 받았겠습니까? 기도하려 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혀 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채찍으로 맞고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가만히 있어요. 왜? '그래, 이 빌립보에서는 감옥만이 기도할 장소다'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에~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매를 많이 맞았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많이 매를 맞을 동안 로마시민임을 밝히지 않고 착고에 채워져 깊은 지하 감옥에 던져진 이유가 아무리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할 장소를 찾기 위해서이겠느냐? 그럴 리는 없지!"
이렇게 말하신다면 여러분은 아직 기도가 뭔지 모르시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 9장에 보면, '내가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아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한대요. 참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 시킨다', 이유는 내가 복음을 전한 뒤에 그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

그러니까 바울이 한 것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전한 복음에서 자기가 떨어질까 봐 죽기 살기로 기도합니다. 근데 빌립보 지역에 와서 회당이 없는 관계로 마땅히 기도할 장소를 찾지 못하게 되자 매를 얻어맞으면서까지 감옥에 들어가서 격리된 장소를 찾고 그 속에서 기도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삼박자 축복을 따르는 기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하고 곧바로 찬양해요. 그리고 난 후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의 단계는 관찰의 단계에요.

보통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으니까, 이 감옥에 갇힌 풍랑 만난 상태를 잠재우는 감옥에서 풀려나는 기도를 했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나는 지진의 사건이 있은 뒤에 찬양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도하고, 지진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찬양을 합니다. 왜 그래요? 기도를 통해서 몸이 처해 있고 몸이 끼어들어가 있던 상태에서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이 마음이 빠져나오고 하늘에 참여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참여하고 천지창조주 되심에 참여하고 나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몸이 아프다는 상황에서 풍랑 속에서 잠자던 예수님처럼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찬양을 한 겁니다. 찬양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처한 그 상황에서 역사하십니다. 이제 관찰의 단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관찰하느냐?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 문이 열리고 발에 찼던 쇠고랑이 탁 터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쇠고랑이 터져나갔으면 하나님의 역사니까 만군의 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니까 나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 있어요. 자기 상황을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구경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일이 아닌데, 더 이상. 마음이 빠져 나가버려서. 하늘에 안기고 하늘에 참여된, 하늘에 앉히운 바 돼서 하늘 기운을 갖고 찬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몸이 처한 상황에서 역사하시면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린 상황을 가만히 구경해요. 착고가 지금 남의 다리에서 풀린 겁니까?
자기 다리의 착고가 풀리고 자기가 갇힌 감옥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구경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의 장엄함이고 기독교의 멋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풍랑을 잠재우려 하지 않고, '풍랑아, 일어나라!' 풍랑 위에서 잠자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다 뒤집어 져서 내게 부르짖으라는 예레미야서를 그렇게 오해해 가지고…

여러분,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에서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부른다는 게 뭐예요? 돈 문제 때문에, 돈이라는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난리치는 것처럼 주님을 부릅니다. 그 때 뭐라고 하시냐면,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얘기하세요. 돈의 풍랑 때문에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이 건강 문제가 있을 때, '건강 주세요, 하나님!'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업 잘 되게 해 주세요,. 이러란 얘기가 아닙니다. 풍랑 만난 배 위에서 제자들에게 예레미야가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를 바꿔 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풍랑을 잠재울 게 아니라. 잠자고 계신 예

수님 위에 포개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잠이 전염이 되었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내게 부르짖으란 얘기는 '돈 주세요, 하나님!' 하며는 돈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냐 하면, '돈아, 너만이 내 마음에 평강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게 평강을 줄 수 있는 돈, 그 돈을 하나님 좀 주세요! 결국 돈에게 부르짖는 거라는 겁니다. 건강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과 창조주 되심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건강이 내 마음에 평강을 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한다는 말이 '건강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없다',

아니, 건강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건강 없어도 주님의 십자가는 있잖아요, 돈 없어도 주님의 십자가는 있잖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돈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내 옆에 계시잖아요, 그래도 돈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요, 말이 되는 소리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오버랩 시키면서 머리부터 창에 찔린 옆구리, 채찍에 맞은 몸, 못 박힌 손과 발, 이 모든 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풍랑의 상황이든지 이 세상에 내 마음이 걱정과 근심과 불만과 아니면 이 세상에 빠져들게끔 사업이 잘 될 때도 마찬가지에요,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게 기독교입니다.

빠져 나와서 세상에 끼어들지 않고, 세상에 불참하고, 세상에 제로 되고, 그 세상을 향해 열망하던 그 열정을 가지고 하늘을 찾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요? 이미 내게 사랑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인식해 가야 되요.
그 사랑을 느껴가야 돼요. 만군의 주 되심이 느껴지면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자마자 죽을까봐 벌벌 떨던 베드로가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서 설교하며 삼천 명을 회개시킨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회개시키는 데에서만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주님을 통해 보여 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 주는 거예요. 실감나게 해 주는 거예요. 그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뛰쳐나가 설교한 것은 ready action! 그 안에서 주님께서 나가셔서 설교를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빠져나오고 시간을 들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랍니다. 성령님, 내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세요. 그 사랑을 벌 수 있게 해 주세요. 돈만 벌려고 위해서 애쓰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느끼게 해 주시고 자식만을 위해서 애쓰며 살았는데 이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 가면서 살게 해 주세요. 평생 이 과제를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참여하는 만큼 하나님 아버지가 내 몸이 처한 삶의 현장에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백합화를 입히시듯 내 삶을 당신의 활동 장소로 삼아 활동하시는 모습을 관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떨어져 분리돼서 하늘의 기쁨에 싸여서 관찰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 어떨 때 매순간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서 레디, 액션! 하시면서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하세

요. 화장실을 청소할 수도 있고 밥을 지을 수도 있고 설거지를 할 수도 있고 나가서 직장생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 하늘에 참여되어 있고 세상에는 불참한 상태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관찰하는 사람에게만 주님께서 액션을 취하시게 되지요.

이 모든 삼박자 축복이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바울처럼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기도의 장소를 찾으려고 했던, 기도에 목숨을 건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목숨을 거세요. 돈 버는 데 목숨 걸지 말고, 건강 지키는 데 목숨 걸지 말고 형통을 위해 목숨 걸지 말고 전략을 짜는 데 목숨 걸 것이 아니라, 기도에 목숨을 걸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진행되어 갈 것이고, 몸이 움직여야 될 일이 있다면, 레디 액션! 주님께서 움직여 가실 것입니다.

십자가 기도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기도 하십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삼박자 축복, 기도를 통하여 내 것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십자가를 붙잡음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하시고 내 마음이 하늘에 참여되어 하늘아버지의 사랑, 주님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그 하늘아버지의 교제가 나와의 교제가 되도록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그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시간을 들이며 기다리고 인내하는 기도의 시간이 날마다 목숨 걸고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